

박찬일의 '밥 먹고 합시다'



주방 연기가 무섭다

예전에 자주 기관지에서 피가 나와 겁이 덜컥 났다. 몇 달 간 지속되다가 약을 먹으면 나아지기를 반복했다. 어느 날 종합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았다. 시티(CT)를 찍었고 그는 “폐암이 의심된다”고 했다. 담배 타이트를 거라고 했다. 끊었다. 금연 20년 이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나는 호흡기가 안 좋다. 꼭 담배 때문에 폐가 나빠진 게 아니었을 수도 있다. 나는 기름 연기를 많이 마시는 요리사이고, 그걸 그 의사가 다 추정하지 못했다.

몇 년 전인가, 어느 산업의학자의 글을 읽었다. 요리 사들이 폐암에 잘 걸린다는 내용이었다. 한국 통계는 아니었고, 외국의 사례를 들었다. 어느 지역 중국 여성들이 (비흡연자) 유달리 폐암 발생률이 높길래 조사를 해 보니, 튀기고 볶는 요리가 많은 중국요리의 특성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었다. 요리를 하면 분진이 생긴다. 유증 기라고도 하고, 요리 연기(cooking fume)이라고 한다. 아주 최근에 이런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도 거론되기 시작했다. 교육부에서 조사한 ‘학교 급식 노동자 폐암 건강검진 현황’ 이 언론을 탄 것이다. 신문 기사 제목이 이렇다.

“급식 노동자 1백 명당 1인꼴 폐암 의심”  
 무서운 소식이다. 학교 급식 노동자가 최초로 산재 판정을 받은 것도 역시 최근이다. 그 이후 교육부에서 급히 조사를 한 모양이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외식이 증가하면서 가족 친지 중에 요리사가 없는 집이 드물다. 나는 오륙 년 전에 신문 칼럼에 이런 문제를 일찍

이 경고하고 조사와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그 이후 급식 노동자(요리사)의 폐암 산재 판정으로 사회의 수면 위에 떠오른 셈이다.

나는 주방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두고 검사를 해 본 적이 있다. 놀랄게도 볶고 굽고 튀기는 시간대에 미세 먼지가 몇 백 단위로 올라간다는 걸 확인했다. 내가 일하는 주방은 배기 시설이 상당히 좋다. 그런데도 그렇다. 문제는 대다수 주방 배기 시설이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영세할수록 더 심하다. 배기 설비는 상당히 비싸다. 요새는 연기를 마구 밖으로 빼지 못한다. 민원도 있고, 허가 관청에서 감독하기 때문이다. 5-6층 이상 되는 건물 1층이나 지하에 식당에 입주하면 옥상까지 배기통을 빼서 올리기도 한다. 당연히 거액의 비용이 든다. 그러니 영세한 식당은 어떻게든 ‘대중’ 배기를 하고 만다. 심지가 있는 배기 팬도 전기세가 들고 시끄럽다고 꺼놓는 경우도 많이 봤다. 아닌 게 아니라 고깃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제일 낫다는 말도 있다. 고깃집은 냄새와 연기로 배기 설비가 테이블마다 붙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치킨집도 유심히 봐야 한다. 치킨은 튀기는 작업이 이어진다. 튀김은 유증기를 많이 발생시킨다. 우리가 말하는 고소한 기름 냄새의 이면에는 그걸 만드는 사람의 고난이 숨겨져 있는 셈이다. 영세한 치킨집에 배기 설비를 제대로 갖추라고 압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걸 단순히 허가와 행정지도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 차원에서 심도 있고 즉각적인 조사가 이

루어져야 한다.

요리사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조사만 하고 말 일도 아니다.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산재 판정에 인쇄하기로 소문난 근로복지공단도 최근 급식 노동자의 폐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주고 있는 추세다. 지금까지 50여 명이 인정받았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소수인 급식 요리사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므로 그나마 비교적 빨리, 전향적으로 산재 판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영세한 개인업체에 일하는 절대 다수의 일반 요리사들의 폐암은 아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또 담배를 피우고 있거나 끊었더라도 피운 이력이 있는 요리사는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으려면 험난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튀기거나 볶는 요리는 맛있다. 구운 고기가 삶은 고기보다 맛있는 이유다. 구이집이 많은가 보쌈집이 많은가. 불고기가 한국의 대표 요리가 되고, 스테이크가 세계적 요리가 된 것은 바로 구울 때 마이야르 반응이라는 맛 생성 프로세스가 가동되기 때문이다. 튀길 때도 마이야르 반응이 아주 높게 출현한다. 책상도 튀기면 맛있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국민 건강에 정부, 지자체가 나서서 건 당연한 일이나 이런 설비를 할 때는 보조금이라도 지급해야 한다. 그게 사회적 비용이 훨씬 싸기도 하다. 무엇보다 얼마나 어떤 상황에 노출될 때 위험한지 정확한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 그래야 막연한 불안감을 덜 수 있다.

〈음식칼럼니스트〉

의료칼럼

임플란트에 대한 단상



류수경  
 화정유치과 대표원장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귀한 풍경을 본 적이 있다. 5천원대 치킨을 사기 위해 기다리면서도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과연 원가가 얼마일까? 프랜차이즈 치킨이 대형마트 치킨에 비해 3배나 비쌀 이유가 무엇일까?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치킨의 원가도 판매가도 중요하지 않다. 치킨을 사기 위해 마트를 방문한 손님들이 치킨만 사지 않고 다른 물건들을 사기 때문이다. 실령 치킨을 팔아서 손해가 나더라도 다른 상품을 팔 수 있고, 이를 통해 손실을 이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때 문에 가능한 이벤트이다. 반값, 반의 반값 치킨은 일종의 미끼 상품인 것이다.

그럼 치킨 대신에 임플란트를 대입해 보자. ‘임플란트 이벤트 59만 원’ 이보다 더 싼 가격을 내걸며 광고하는 치과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는 일부 대형 치과에서 박리다매식 담핑 진료를 위한 일종의 환자 유인을 위한 미끼인 것이다. 물론 환자의 입장에서 대형마트의 반값 치킨과 같이 임플란트 치료를 저렴하게 받을 수만 있다면 더 없이 좋은 선택이고, 나 또한 그 치과에서 치료를 받을 것을 권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한 치과의 대부분은 싼 치료비를 무기로 환자를 유인하고 과잉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다. 임플란트 치료는 생각하는 것처럼 잇몸뼈에 나사를 박아 보철물을 올리기가 하면 되는 간단한 치료가 아니다. 환자의 잇몸뼈 상태, 신경의 위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잇몸뼈가 약한 경우에는 잇몸뼈의 이식이 필요하기도 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추가로 치료비가 발

생하게 되고, 속칭 담핑 치과는 과잉 진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결국 환자의 입장에서는 과잉 진료의 피해를 당했음에도 그 사실을 모른 채 산 값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제값 줄 것 다 주거나 오히려 더 지불’하고도 임상 경험이 부족한 의사에게 불필요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컨대 대형 담핑 치과의 경우는 임상 경험이 부족한 ‘페이더티’를 고용해 과잉 진료를 하고, 전통적으로 검증이 된 다른 보철 치료 방법이 있음에도 임플란트가 현존하는 최고의 치료법인양 환자들을 현혹하기 때문이다.

대다수 선량한 치과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해 드리고 있으나, 이미 환자들은 ‘임플란트 59만 원’ 이 नी리에 박혀 의료진들의 설명을 애써 들으려 하지 않는다.

얼마 전 환자 한 분이 임플란트 상담을 위해 오셨다. 임플란트 식립을 원하셨고, 다른 치과에서 이미 견적까지 내오신 분이다. 그런데 그 환자분께 애둘러 다른 치료를 권하며, 임플란트 식립이 필요 없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다. 의료진에 따라 치료 방법에 대한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이번 케이스는 전형적인 과잉 치료로 같은 치과의사로서 참 부끄러웠다.

양심적인 치과는 임플란트 가격이 싼 치과가 결코 아니다. 양심적인 치과는 꼭 필요한 치료만을 권하는 치과, 과잉 진료를 하지 않는 치과일 것이다. 자기 가족에게 권할 수 있는 치료만을 환자분께 정당하게 권하는 치과가 바로 우리 동네, 우리 가족의 주치의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社說

비싸고 더럽고...무안공항 전세기 관리 손 났나

호남권 유일의 국제공항인 무안공항에서 운항 중인 전세기 관리가 엉망이어서 이용객들의 불만이 높다. 다른 지역 공항보다 두 배 가까이 비싼 탑승료를 내야 하는 데다 기내 청소소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탓이다.

무안공항은 코로나19 검역 조치 완화 이후 지난날 16일부터 동계 시즌 국제선 운항을 재개했다. 현재 제주항공과 퍼시픽항공에서 일본 오사카, 태국 방콕, 베트남 다낭·나트랑 등 네 곳을 오가는 전세기를 운 영 중이다. 한때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들이 다른 지역 공항보다 비싼 탑승료를 받고 있다. 무안-나트랑 간 탑승권의 경우 저가 항공사임에도 편도 65만~70만원에 달해 인천에서 출발하는 정기편 요금 30만~40만 원의 두 배에 육박하고 있다.

더욱이 무안공항 국제선은 현재 정기편 이 단 한 편도 없고 전세기로만 운영돼 오 해 증가율에서 전국 공항 중 1위를 차지하 지도 했다. 이로 인해 광주·전남 여행객들은 인 천 등 타 시도 국제공항으로 가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값비싼 전세기를 타는 것 외 에 선택지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기내 청 소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객실 내 악취가 진동하고 쓰레기가 골라다녀 불쾌했 다는 여행객들의 원성이 이어지고 있다.

무안공항의 이런 모습은 서남권 거점 공항의 열악한 위상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올해로 개항 15년을 맞 았지만 국내외 정기 노선이 거의 없고, 편 의시설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 더욱이 공 항 당국은 탑승 수속 등을 도울 인력이 없 다며 추가 전세기 취항마저 거절하고 있 다고 한다.

물론 전세기 탑승료나 청소 문제가 여행 사와 항공사 소관이라곤 하지만 그렇다고 국제공항 이미지까지 먹칠하는 행위를 방치 해선 안 될 일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 년 무안공항은 연간 이용객이 90만 명에 달 해 증가율에서 전국 공항 중 1위를 차지하 기도 했다. 한국공항공사와 전남도는 무안 공항이 다시금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활 성화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강제동원 시민역사관’ 건립 광주시가 지원해야

광주는 일제 강제 동원 규명 및 피해 보 상 운동의 중심지라고 할 만하다. 양극덕 할머니를 중심으로 한 피해자들의 손해배 상 소송이 처음 시작된 곳이 광주지방법 원이고, 미쓰비시자동차 등 전범 기업 불 매 운동을 주도한 이들도 광주·전남에 터 를 잡고 활동해 왔다. 1990년대 강제 동 원 문제를 처음 이슈화한 고(故) 이금주 태평양전경희생자 광주유족회장의 활동 무대도 광주였고 관련 자료도 가장 많다.

(사)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이 가칭 ‘일제 강제동원 시민역사관’이란 이름으 로 기념관 설립을 추진하는 이유다. 시민 모임은 지난해부터 시민 성금으로 역사관 건립을 추진해 왔다. 일제 강제동원의 진 실을 기록으로 남겨 후세에 전달하려면 기록을 모으고 전시하며 교육을 할 장소 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 지역에는 실제로 귀한 자료들이 많 다. 이금주 할머니가 생전에 수집한 소송 과정 등을 담은 기록은 물론 1000여 명이

넘는 피해자 진술서와 일기장, 영상물까지 다양하다. 1150여 건에 달하는 자료는 4 년 전부터 국가기록원에서 디지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말이면 마무리된다. 문 제는 이런 귀한 자료를 돌려받더라도 보관 하고 전시할 공간이 없다는 점이다.

시민모임은 역사관 건립을 위해 모금 캠페인을 준비했다가 행정안전부의 기부금 품 모집 불가 통보에 중단한 상태다. 그제 광주시에 역사관 건립 제안서를 제출하고 직접 나서 줄 것을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 다. 일본에서 오랫동안 강제동원 피해자들 을 지원해 온 나고야소송지원회 일행은 이 날 광주를 방문해 시민모임에 역사관 건립 기금 1000만 원을 쾌척하기도 했다.

법적 제약으로 민간 차원의 역사관 건 립 기금 마련은 어려워진 만큼 이제는 광 주시가 적극 나서 지원해야 한다. 명분은 충분하다. 강제 동원 피해 구제 운동의 메 카에 역사관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 는가.

無等鼓

10여 년 전쯤 서울에서 관람했던 연극 ‘벨’은 잊을 수 없는 작품 중 하나다. 김은 성 작가가 희곡을 쓴 ‘벨’은 러시아 작가 체홉의 ‘갈매기’를 모티브로 한 작품으 로, 연극의 배경을 보성의 어느 마을로 옮겨와 이야기를 풀어 나간다. 질펀한 전라도 사투리가 등장하는 연극은 강렬한 스토리의 힘과 배우들의 연기가 어우러져 마음에 오래 남았다.

당시 로비에서는 희곡집을 팔고 있었 다. 체계적인 희곡집 형태가 아닌, 간략하 게 묶은 책이었다. 광주 로 내려오는 버스 안에 서 엷은 불빛에 의지해 ‘헤어질 결심’ 각본 희곡을 읽으며 작품의 감동에 또 한 번 빠져들었던 기억이 있 다. 이 작품은 몇 년이 흘러 광주시립극단 이 무대에 올리기도 했다.

아마도 가장 처음 구입한, 제대로 된 희 곡집은 오태석의 ‘심정이는 왜 두 번 인당수 에 몸을 던졌는가’일 것 같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심정전’을 비롯한 이 작품을 처음 접했 을 때의 놀라웠던 감정이 지금도 떠오른다.

최근 들어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각본집 과 나는 쉽지 않았지만 격랑과 폭풍우를 헤치며 함께 항해할 생각이 다. 전학생을 지지하는 우리 학교 많은 선생님들과 우리 둘 의 변함없는 믿음이 지속된다면 조광일을 넘는 래퍼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노회경 작가를 만나고 부덕일 듯하다. 드 라마 ‘거짓말’ 등에 등장했던 그 주옥 같은 대사들이 어찌 마음에 남지 않겠는가.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각본집은 그중에서도 인기 상한다. 영화는 상영 당시에도 ‘N차 관람’ 열풍이 일었고 “나 는요 완전히 붕괴됐어요” “마침내”라는 대사와 매력적인 스토리에 빠진 사람들의 각본집 구입으로 이어졌다.

최근 열린 청룡영화제 시상식은 ‘헤어 질 결심’을 또 한 번 화제의 중심으로 데려 왔다. 이날 열린 축하공 연에서 영화를 더욱 빛나 게 했던 정훈희의 ‘안개’ 가 흥를 때, 주인공 서래

역을 맡았던 탕웨이 가 객석에서 눈물을 쏟는 장면은 ‘헤어질 결심’의 또 다른 ‘한 장면’으로 오래 기억에 남을 듯하다.

우연히 영상을 접한 후 정훈희, 송창식, 함춘호가 함께 한 영화 OST 버전의 ‘안 개’를 반복해 들으며 활자로 읽어 내려가 는 ‘헤어질 결심’은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 온다. 영화도 좋았지만, 하나 하나의 대사와 지문을 음미하고 장면을 상상하게 하는 각본집 ‘헤어질 결심’은 멋진 문학작품임 에 틀림없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기 고

전학생의 꿈



박주정  
 광주 전남중 교장

얼마 전에 그 학생을 교장실로 불렀다. 얼굴도 잘 생겼고 자유분방한 모습이였다. 요즘은 뭘 좋아하느냐고 물었더니 랩을 좋아한다고 했다. 공부는 어때냐고 물 었더니 초등학교 때에는 꽤 공부를 잘했는데 중학교에 올라와서 소홀히 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지나가는 말로 “여기서 랩 한 번 해 볼 수 있냐”고 물었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해 볼까요” 했다.

전학생은 교장실에서 30여 분 동안 거침없이 손을 흔들며 신들린 듯 랩을 했다. 나는 처음으로 가까이에서 실제 랩을 봤기 때문에 호기심, 당황, 웃음이 뒤엉켰 다. 혼자 보기에 너무 아까워 행정실 선생님들과 지나 가는 여학생들을 불러들였다. 여학생들도 함께 몸을 흔들며 즐겼고 전학생은 더욱 신이 나서 멋지게 노래를 불렀다.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여학생들에게 이 학생 은 랩을 잘해서 우리 학교에 스카우트했다고 하니 순간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전학생도 기분이 ‘업’ 되는 순간 이었다.

전학생에게 “누구를 제일 존경하고 좋아하냐”고 했더니 “조광일 래퍼”라고 말했다. 조광일이 누군지 몰라 서 물었더니 랩의 황제라고 말하면서 한 번 만나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고 했다. 공금해서 ‘조광일’을 검색해 봤더니 공교롭게도 전에 내가 교장으로 근무했던 고등 학교 졸업생이었다. 바로 그 학교 교감 선생님께 조광 일 연락처를 묻자 조광일 아버지가 얼마 전 ‘쇼 미 더 머니 10’에서 전국 대상을 받아 교문에 플래카드를 걸

어서 연락처가 있다는 것이었다.

조광일 아버지가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고 통사정을 하였더니 다음날 우리 학교에 오셨다. 나는 이 학교 교 장으로서 전학생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다고 했더니 광 일이가 전북 어느 고등학교 축제에 온다고 하면서 같이 동행해 주겠다고 했다.

전학생을 태우고 축제장으로 달렸다. 전학생은 꿈에 그리던 조광일을 만난다고 하니 차 속에서 계속 랩을 불렀다. 조광일 아버지의 주선으로 조광일은 공연 전 상당한 시간을 전학생에게 할애하여 상담과 격려를 해 주었고, 사인과 기념 촬영까지 해 주었다. 조광일의 멋 진 공연을 계속 따라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 다. 광주로 돌아오는 차 속에서 전학생은 나에게 먼저 말을 꺼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진지하게 말했다.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랩을 열심히 해서 훌륭한 래퍼가 되어 다음에 교장 선생님을 공연장에 초청 하겠으며, 지각 결석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 전학생은 그날 밤 집으로 들어가 책상을 정리하고 공부할 준비를 했다고 학부모가 전화를 했다. 우리 집 에, 우리 가정에 기억이 찾아왔다고 울먹였다. 전학생 과 나는 쉽지 않았지만 격랑과 폭풍우를 헤치며 함께 항해할 생각이 다.

전학생을 지지하는 우리 학교 많은 선생님들과 우리 둘 의 변함없는 믿음이 지속된다면 조광일을 넘는 래퍼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權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문화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